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억을 통한 사색적 표현 연구

- 본인 판화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노 덕 희

기억을 통한 사색적 표현 연구

- 본인 판화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노 덕 희

인 준 서

노덕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8년도 석사 학위 청구 전시, ‘기억을 통한 사색적 표현 연구’ 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의 의도와 조형적 관점을 고찰하여 서술한 글이다.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의 기억 속에는 지난 세월의 경험과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이러한 경험과 기억은 현재의 본인을 이루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이며 이야기이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본인의 삶을 이어주는 자전적 기록이다. 이러한 자전적 기록을 기억하고 사유하며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실존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본인의 작품은 지난 시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의 시간 속에서 이를 사색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일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가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억하고 사색해보는 과정으로서 조형적 표현의 모색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인은 기억의 의미와 사색의 구조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을 잇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지하고, 삶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의 두 시기로 나누어 연구 분석하였다. 첫째, 경험한 기억을 추억하는 시간으로 발레(Ballet)학습 기억의 의미를 삶의 모습과 연계시켜 선(線)적 흐름으로 해석한 표현 연구와 둘째, 달의 이미지를 통해 사색하는 오늘의 심상적 흐름의 의미를 조형적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서술하였다.

이렇게 본 논문은 연계된 시간 속에서 발레와 달의 이미지를 조형화 한

작품형성 배경을 서술하고, 리듬에 의한 춤 동작의 감정 표현이 삶의 모습과 유사함을 논하였다. 그리고 사색의 대상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달의 의미를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로 이어지는 사색의 흐름으로 설명하고, 이를 ‘선적 흐름’의 조형성으로 해석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작품의 관화 기법을 중심으로 한 조형적 표현 기법을 설명하고, 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된 제작 의도와 표현성을 서술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와 풀어야 할 과제를 논하였다.

본인은 이와 같은 과정의 서술을 통하여 ‘기억’과 ‘사색’의 관념을 시각화 시키는 표현 방법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 것을 토대로 향후 지속할 작업의 방향 모색과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배경	3
2. 작품의 내용 연구	5
1) 기억의 시간	5
2) 사색의 흐름	7
3. 작품의 조형연구	9
1) 선과 리듬	9
2) 기억의 투영	15
4. 작품 분석	17
III.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록

- 작품1. <Rhythm>, sugar lift, spit bite aquatint, line etching,
print on Hahnemuhle 23x30cm, 2018
- 작품2. <Motion>, sugar lift aquatint, print on Fabriano, 60x60cm, 2018
- 작품3. <Flamenco dance>, sugar lift aquatint,
print on Fabriano, 13x9cm, 2017
- 작품4. <Rhythm and sound>, Sugar lift aquatint,
print on Fabriano, 80x120cm, 2017
- 작품5. <Ganymede>, etching,
print on Hahnemuhle 10×10cm, 2016
- 작품6. <Moonlight I>, Etching, sugar lift, soap ground aquatint,
print on Hahnemuhle, 10x10cm 2017
- 작품7. <Moonlight II>, sugar lift aquatint, soap ground etching
print on Hahnemuhle, 10×10cm, 2017
- 작품8. <Moonlight III>, monotype chine colle
print on Fabriano, 60×60cm, 2018
- 작품9. <Memory-Ballet>, monotype,
print on Fabriano, 30×30cm each, 2018
- 작품10. <Memory-Moon>, monotype, print on Fabriano, 90x90 cm, 2018

도 판 목 록

- 도판1. 노덕희, <Ganymede>, 에칭, 10x10cm, 2017
- 도판2.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캔버스에 유화, 73.9x92.1cm, 1889
- 도판3. 앨런 윌리엄 시비, <나이팅게일>, 목판화, 28.5x20.7cm, 1920년대
- 도판4. 선(線) 연습, cropped image, sugar lift aquatint, line etching
- 도판5. 선 연습, 6B pencil on paper
- 도판6. 노덕희, <Flamenco Dance> 에칭, 13x9cm, 2017
- 도판7. 노덕희, <Motion> 에칭, 60x60cm, 2018
- 도판8. 자코모 발라, <줄에 묶인 개의 다이내미즘>, 캔버스에 유화, 89.8x109.8cm, 1912
- 도판9. 솜 그라운드 아쿠아틴트(soap ground aquatint) 배합 자료
비눗가루, 린시드 오일, 타이타늄 옥사이드
- 도판10. 작업 과정
- 도판11. 노덕희, 작업 고스트 이미지, 2018

I. 서 론

테크놀러지(technology)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우리 삶의 모습과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기본적 가치관을 변화시켜 강박, 불안, 우울, 위기감, 가치 상실 등 여러 정신적 문제를 현대인들에게 야기시켰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의 기원을, 신경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Viktor Emil Frankl 1905-1997)은 인간의 실존적 공허¹⁾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 실존적 공허 문제의 치료법으로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²⁾(Logotherapy)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 개념은 인간이 갖는 실존적 공허의 문제를 자신의 삶속에서 ‘의미’를 찾아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며 치유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삶의 경험 속에 내재된 이야기로서 ‘기억’을 바탕으로 삶의 모습을 사유하고, 이를 오늘의 삶에 적용하여,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기억하고 사유하며, 상상하고 이를 표현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확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의 자전적 기록으로서, 지난 세월의 경험과 추억의 기억으로부터

1)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e-book)>, 청아출판사, 2005, p.90

2) 로고테라피(<https://ko.m.wikipedia.org>) 의미치료란 신경학자이며 정신과의 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더불어 세 번째 심리치료방법이다. 로고테라피는 실존분석에 근거하여 니체의 권력 의지론을 주장한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쾌락의지론에 반대하여 키에르케고르의 의미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원리는 미래에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는 의미를 뜻한다. <https://namu.wiki> 로고테라피의 어원은 logos + therapy 이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 창안한 기법으로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 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통을 회피하거나 긍정적 정서를 최대한 경험하라는 다른 심리 치료법과는 다르다. “……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은 의미치료의 기본 신조 중의 하나이다. 자기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꺼이 그 시련을 견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빅토르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p.187.

터 삶의 의미를 사유하고 이를 조형화시켜, 의미론적 측면에서 ‘실존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인이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이를 사유하는 의미는 현재부터 앞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동안 지향하여야 하는 본인의 인생관과 정체성이 연계되어 있고, 이는 생에 의미를 부여해 보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장되고 보존된 기억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사유해 보는 일은 본인의 실존적 의미를 모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과거의 ‘기억하는 시간’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사유의 시간’의 삶의 이야기를 ‘흐름’으로 조형화한 관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인 작품 내용과 조형적 관점을 서술하기 위해 II장 본론 1절에서 기억과 사유 라는 연계된 시간 속에서 발레와 달의 이미지를 조형화하는 작품 형성 배경을, 2절에서는 움직임과 정지를 거듭하는 발레 이미지와 사색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달의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의미적 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관점을 관화 매체의 표현적 특성과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10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도와 조형적 관점을 제시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끝으로 III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유추된 작품의 발전 가능성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빅터 프랭클은 물질을 추구하는 현대 산업사회는 후유증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실존적 공허’라는 정신적 질환을 야기시켰다 하며, 이의 치료법으로서 ‘로고테라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치료방법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의지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고 개인이 갖는 고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과정을 뜻한다. 의미란 하나의 가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것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

선택적 측면에서 자아를 확립하는 방안으로, 본인의 일상의 한 부분인 조형적 행위인 ‘그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실존감’ 나아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자신을 표현하는 미술 행위인 그리기란 사고를 형상화시키며 생각과 감정을 시각화 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순간을 기록하며 오래 기억하기 위한 글쓰기와 유사하다. 본인은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또한 의미³⁾를 갖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본인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발레를 학습했던 경험을 기억한다. 리듬에 맞추어 빠름과 느림 그리고, 정지의 몸동작으로 선율의 감정을 드러내는 발레의 몸짓은 인생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흡사하게 여겨진다. 본인의 작업 안에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를 조형적으로 해석하여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교차되고 반복되어 지는 삶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즉, 지나간 삶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삶의 이야기와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통해 삶의 가

3) 의미- 개인의 삶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e-book), p.92

치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과거라는 시간적 좌표를 지닌 ‘기억’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 마음속의 모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망을 받아 들어준 대상인 달(moon)과의 대화로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진다. 어두운 밤의 달빛은 본인의 심상을 드러내는 사색의 시간으로서 기억과 회상이 담긴 사유를 투영하는 상징체이다. 즉 본인이 지향하여 나아갈 심상을 달(moon)의 이미지에 투영하여 실존적 자아 정체성을 모색하고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밤의 어둠을 밝히는 달은 시간에 따라 이지러지고 차오른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달의 모습은 되풀이 되는 인간의 생의 주기와 닮았다. 기억하고 사색해보는 과정으로서 조형적 표현의 모색은 삶의 의미를 정립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어 2018년 본인의 석사 청구 전시, <기억을 통한 사색적 표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다. 본인이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이를 사유하는 의미는 현재부터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으며, 나아가 본인의 정체성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것을 생애 의미를 부여해 보는 삶의 중요한 태도로 보며, 이 과정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로고테라피 개념의 모색을 조형적으로 시각화 하여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작품의 내용 연구

1) 기억의 시간

기억(記憶)은 사전적으로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 또는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기억은 지난 삶 속에 체험하였던 삶의 편린들이 하나하나 쌓여 형성된 삶의 이야기이다. 때때로 이 삶의 흔적으로서의 기억은 삶의 무게에 눌려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따뜻하고 즐거웠던 시절의 기억으로 잠시나마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하기도 하며 이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은 지난 삶 속에 체험하였던 삶의 편린들이 쌓여 형성된 삶의 이야기이다. 이처럼 삶의 편린으로서의 특정한 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의 공간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불현듯 오늘날의 삶 속에 나타나 삶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러한 기억에 관하여 존 버거(John Berger 1926-2017)는 “카메라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카메라는 잊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⁴⁾ 라고 하였다. 카메라가 ‘기록’이라는 장기 기억의 저장 장치라면 기억⁵⁾은 회상, 망각, 사고, 추론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더 넓은 영역인 것이다.

본인은 수년전 스페인 여행에서 프라멩고 춤⁶⁾을 볼 기회가 있었다. 다양한 변주 속에 이루어지는 기타 반주가 춤 시위와 현란한 무대의상과 결합하여 격정적인 열정과 마음 깊은 심연에 잠재해 있는 애잔한 연민을 불러 일으키면서, 마치 본인의 모습을 보는 듯 발레 학습 시기의 경험이 연상 되

4) 존 버거, <분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6, p.83.

5) 기억: 뇌에 받아들인 인상, 경험등 정보를 간직한 것, 간직하다가 도로 떠올려 내는 것을 말한다. 단기 기억, 감각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 명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 등으로 분류한다(<https://namu.wiki>).

6) 플라멩코 무용 ko.m.wikipedia.org스페인의 민족무용은 그리스 로마의 고대부터 중세의 아라비아 시대를 거쳐 전해진 아름다운 춤이다.

었다. 나아가 그 시절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였던 동작에 내재된 의미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 몸짓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랫동안 훈련으로 단련한 몸 동작 하나 하나가 모여 움직임의 흐름을 형성하여 춤으로 드러난다. 각 춤 동작들에는 기쁨과 환희 또는 슬픔과 절망등 삶 속에 깃든 단편적 모습이 내재되어 있고, 이들은 시간 속에서 이어져 삶의 이야기로 드러나게 된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숨가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좌절감을 갖기도 하는 것처럼 춤의 감성적 표출은 삶의 모습과 흡사함이 인지되었다.

무희의 화가로 불리우는 에드가 드가(Edgas Degas 1834-1917)는 자신의 예술적인 방법은 “순간의 인상을 의도적인 미학적 목표와 상상력에 존속시키는 전환 과정이며 그 기억 속에 고착된 것을 그리는 것, 그것은 환상과 기억이 함께 작업하는 과정 ……”⁷⁾ 이라 하였다. 그는 드로잉이란 사고의 방식이라 하였고 이 방식의 기억을 되살려 선(線)그리기를 강조하였다. 즉, “선은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태를 바라보는 방식 ……”⁸⁾ 이라 하였다, 이러한 드가의 움직이는 대상을 조형화 시키는 관점을 받아 들여, 본인은 춤이 구현하는 빠름과 느림 그리고 정지 움직임을 삶의 모습과 연계시켜 그것을 선(線)적 흐름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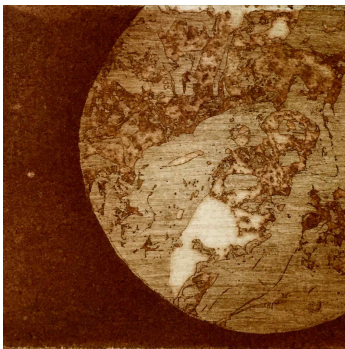
7) 베르트 그로베, <에드가 드가>, 마로니에북스, 2005, p.71

8) 같은 책 p.80

2) 사색의 흐름

본인의 실존적 존재성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까지 본인이 겪은 세월의 흐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 즉 경험으로서 상황을 거울에 비춘 듯이 드러나게 하여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억하고 본인을 투영시켜 보는 달은 본인의 심상을 비추어 주는 상징적 대상이다. 달은 문학과 예술의 단골 소재이다. 수많은 시와 희곡과 소설이 달의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그렸다. 달은 상상과 추론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층위를 지닌 삶의 이야기를 투영하고 추론하기 적합한 대상이다. 어두운 밤의 달빛은 본인의 심상을 투사해 보는 사색의 시간이 되며 기억하며 회상하고 투영해보는 상징이 되어졌다. 천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달은 시간에 따라 이지러지고 차오른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달의 모습은 되풀이 되는 인간의 생의 주기와 유사하다.



도판1. 노덕희, <Ganymede>, 에칭, 10x10cm, 2016

도판2.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캔버스에 유화, 73.9x92.1cm, 1889

도판3. 앨런 윌리엄 시비, <나이팅게일>, 목판화, 28.5x20.7cm, 1920년대

달의 은은한 밝은 빛은 어둠 속에서 은근하게 어머니의 품처럼 푸근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준다. 본인에게 달은 모든 이야기를 받아주고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신비의 존재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나 할머니가 하였던 것처럼, 기쁘거나 슬프거나 마음속에 지닌 속 이야기를 달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지막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털어놓았고 소원을 빌었다. 그 속에는 자량과 후회 그리고 반성과 소망이 함께 내재된 사유의 개념이 깃들어 있다. 사유의 개념으로서 달의 이미지를 상징화 하여 본인의 소재로 선택하였던 이유 또한 전설, 신화, 창작에서 의인화나 신격화 해온 달의 이미지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 46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태양계의 행성은 왜소 행성까지 합쳐 20개를 넘지 않지만 이들 주위를 도는 위성의 수는 100개가 넘는다.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수십 개의 위성을 거느리지만, 지구의 위성은 오직 달 하나뿐이다. 달은 지구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위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대상으로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신비의 대상이다.

달은 인간의 실존과 초월의 은유에 대한 대상이 되곤 한다. 그 달 표면을 덮는 지구의 그림자가 본인이 상상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며 대화 상대가 되어 지고는 했다. 특히 밤이 주는 차분함과 고요 안의 달빛은 회상하고 사색하는 의식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달과의 대화에서 심상을 묻고 답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가며 흐른다. 미세한 달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 내는 그림자에 기억을 투영시켜보며 기억하는 시간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사색의 '흐름'으로 해석하여 미를 창출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이를 시각화 시키는 작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3. 작품의 조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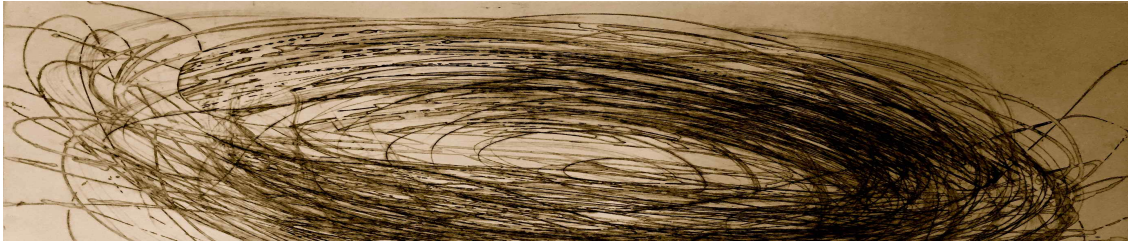
1) 선과 리듬

발레는 인간의 신체를 리듬에 맞추어 움직임을 연출하는 매체(媒體)로, 율동적인 몸짓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상징화된 형식으로 드러내는 예술이다. 율동적인 움직임은 음악의 소리의 높낮이와 박자가 어우러져 만드는 리듬과 결합하여 드러난다. 발레에서 몸짓의 움직임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몸동작과 음(音)의 템포(tempo)와 높고 낮은 리듬의 결합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움직임을 연출하는 운동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동’이란 무엇인가? 운동은 위치 변화이다. 이러한 위치 변화의 시작점에서 정지점까지 따라가면 움직임의 궤적으로서 선(線)이 만들어 진다. 이에 운동은 순수 조형 요소인 선이라는 추상적 대상이 된다.⁹⁾

본인은 발레 동작의 움직임과 음악 소리가 만들어 내는 파장을 선적 흐름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선은 움직임의 흔적으로 형태의 윤곽을 이루며 선의 길이, 굵기, 강약, 속도, 방향등의 표현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조형 요소이다. 이에 본인은 선이 지니고 있는 조형적 특성에 주목하고, 선적 표현성을 주 조형요소로 하여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인이 동판에 동적인 선을 구현하면서 굵으며 생기는 진동은 또 다른 우연적인 선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선들이 중첩되고 교차되면서 예상치 못한 면과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며, 나아가 선의 강약과 속도 조절로 다양한 감성을 지닌 리듬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9) 김상욱, <떨림과 율림>, 동아시아, 2018, p.231



도판4. 선(線) 연습 cropped image
-sugar lift aquatint, line etching on copper plate



도판5. 선 연습, 6B pencil, on paper

회전하며 중첩되는 선들은 역동적인 지난 세월과 닮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과 동일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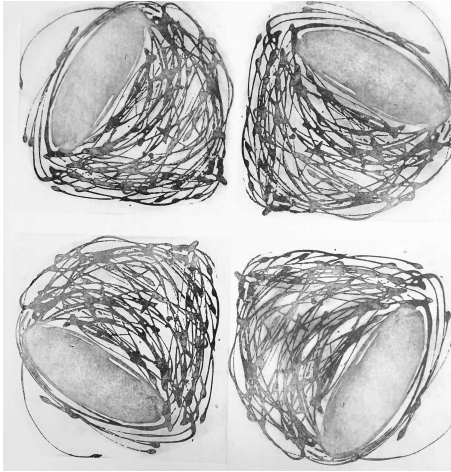
생물학에서 말하는 ‘기억’이란 뇌 안의 해마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뇌 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분자들이 고여있는 평형 상태를 말한다. 옛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화나 기록, 사진 등을 통해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억의 정체이다. 사람의 기억은 뇌 어딘가에 녹화되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상태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뭔가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면 과거가 생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한 감각 속에 있는 것이다. 선명하게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기억은 여러 번 떠올려져 본 적이 있는 기억으로 몇 번이고 떠올리고 그 때마다 아련하게 그리워하였으며 동시에 조금씩 바뀌온 그 무언가이다.¹⁰⁾

10) 후쿠오카 신이치, <동적 평형>, 은행나무, 2017, pp.27-28.

이러한 구조를 갖는 ‘기억’을 본인의 도판6., 작품<Flamenco dance>에서 과거 학습하였던 발레의 동작과 동선을 기억하며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판 위에 이루어지는 드라이 포인트(dry point)기법으로 부드러운 선을 만들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유연한 액체 상태인 용액으로 형성하는 슈가 리프트 아쿼틴트(sugar lift aquatint)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공중에서 유연한 몸동작과 화려한 의상의 펄럭임이 일체가 되어, 스며들 듯이 공간속에 사라졌다 다시 드러나는 프라멩코 무용수의 동작과 의상의 화려한 움직임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선적인 흐름으로 표현하여 보았다.



도판6. 노덕희, <Flamenco Dance> 에칭, 13x9cm, 2017



도판7. 노덕희, <Motion> 에칭, 60x60cm, 2018



도판8. 자코모 발라, <줄에 묶인 개의 다이내미즘>, 캔버스에 유화, 89.8x109.8cm, 1912

발레에서 드러나는 몸짓의 움직임과 리듬의 흐름을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움직임의 ‘흐름’으로 인지하면서, 움직임의 역동성과 소멸성을 드러내며 회전 운동하는 ‘팽이’ 이미지를 연상하고, 이를 다이내믹한 운동감과 정지된 이미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선적 조형요소로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도판8. 이 작품은 진자(振子)¹¹⁾의 운동 원리에 따라 선을 만들었다. 즉, 팔꿈치가

11) 진자 - 정해진 한 점 또는 한 축의 둘레에서 일정한 주기로 진동을 계속하는 물체, 국어 사전, 민중서림, 2011

중심 축이 되고 팔의 길이가 줄의 일정한 길이가 되며 붓 끝이 추가 되어 만들어 지는 형상을 말한다. 일상의 반복과 동일한 힘과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팽이의 평정은 발레에서 한 동작을 습득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였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일과 쉼을 되풀이 하는 일상을 연상하여 보았다.

또한 도판8.에서 보듯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 1817-1958)는 빛, 움직임, 속도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 그렸다. 본인은 속도와 반복의 표현을 선의 리듬감과 이미지의 반복 배치에서 찾아보았다. 같은 이미지를 상하 좌우로 연결시키어 움직임을 갖는 리듬감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시작점과 끝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미지 하나에 다른 색의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선의 흐름과 이미지를 반복 하는 조형은 일상의 반복과 변화를 찾는 마음을 의미한다.

본인은 이러한 동판 작업의 제작 과정에서 반복된 실험을 통해 슈가 리프트 아쿠아틴트를 하기 위한 최적의 설탕 배합을 만들었다. 복잡한 과정의 설탕 배합 대신에 ‘물엿’을 사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선의 굵기에 맞추어 물엿의 농도를 조절한다. 농도는 수성 잉크와 세제(비눗물)에 기인하며 직접적인 농도의 결정 요인은 비눗물이 된다. 즉, 배합할 때 비눗물을 적게 넣으면 동판위에 고착되고 비눗물을 많이 넣으면 고르고 넓게 퍼지지만 제거(hot water lift)가 어려워 진다.¹²⁾ 즉, 가는 선을 표현하는 경우, 비눗물을 적게 배합하고 굵은 선, 면을 위해선 비눗물을 더 첨가하면 된다. 본인이 실험한 최적의 기본 배합 비율은 다음과 같다.

1/2 Cup 물엿 시럽

2 Table spoons 수성 잉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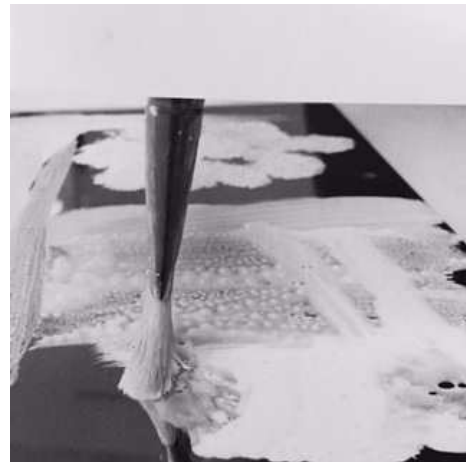
1 tea spoon 비눗물

12) Emily York, *Magical secrets about aquatint*, crown point press, 2008, p.129.

달은 매일 조금씩 이동하며 위치와 모양이 점점 커지고 작아지길 반복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닌 햇빛을 받는 부분에서 만 보여지고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 속성 때문에, 더욱 신비로운 존재이며 마음껏 상상과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본인의 심상을 투영하고 심연의 대화를 나누는 대상으로의 달을,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동판 작업으로 시도하였다. 밤을 밝히는 달의 형상과 깊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비눗가루에 린시드 오일(Linseed oil)과 타이타늄 옥사이드(Titanium oxide)를 섞은 배합물을 송진 가루를 입혀 구운 동판위에 붓으로 본인의 심연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그려내었다. 본인이 화자(話者)가 되어 달에게 묻고, 또 스스로 답하면서 각 기억의 공간 하나하나에 세월의 흐름과 사유의 흐름을 담고자 했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시간의 흐름과 본인의 이야기를 둥근 달 주변으로 유연한 붓 자국을 남겼고, 이야기를 담은 빛을 농담적 표현으로 작은 점으로 드러내었다.



도판9. 솜 그라운드 아쿠아틴트 재료
(soap ground aquatint)
비눗 가루, 린시드 오일
타이타늄 옥사이드



도판10. 작업 과정

2) 기억의 투영

판화는 판에 형상을 그리거나 새긴 다음 그 위에 잉크를 묻혀 종이나 천 위에 찍어내는 기법을 말하며 판화는 일품 회화와는 달리 복수제작이 가능한 매체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화폭에 그리는 일품 회화와 동일하게 찍어내는 기법을 이용하지만 복수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판화 기법으로 모노타이프(Monotype)가 있다. 명칭 그대로 복수성을 갖는 일반 판화와는 달리 한 장만 찍을 수 있는 판화이다. 이는 회화와 판화의 표현성을 함께 구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판 위에 회화처럼 직접 물감으로 그린 이미지를 판화와 동일하게 찍는 방식으로 회화적 표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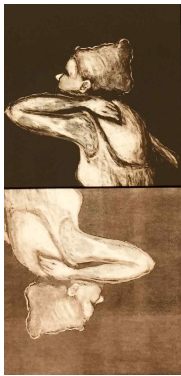
모노타이프와 판화의 공통점은 찍혀져 나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노타이프는 판과 종이가 분리되어 찍는다는 점에서 판화로 분류되고, 복제가 불가능한 사안은 판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회화의 영역으로 볼 여지도 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고스트 이미지(Ghost image)의 표현성에 주목 하였다. 고스트 이미지란 모노타이프 프린트 판위에 그려진 이미지를 한 장 찍어낸 다음 찍힌 판을 다시한번 더 찍은 두 번째 찍힌 판화를 말한다. 이 이미지는 한 장 찍은 판에 다시 찍었기 때문에 흐린 이미지로 드러난다.. 이는 마치 오리지널 이미지가 마치 반사체 위에 비추인 것 같은 미러이미지(Mirror Image)¹³⁾ 효과를 드러낸다. 본인은 단 한 장의 결과물이 나오는 모노타입에 고스트 프린트를 한 장 더 제작하여 그것을 미러 이미지로 만든다. 여기에 착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작하였다.

본인은 이 미러 이미지(좌우가 바뀐)를 현재의 시간에서 사색하는 과거 기억의 ‘투영’으로서 해석하였다. 이 이미지를 찍어내면 첫 장과 고스트 이

13) mirror image <https://en.m.wikipedia.org> 거울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반사된 복제

미지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본인은 이것을 자신과 타자로서 서로 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으로서 의도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통일된 이미지에 상하로 대비시킨 구도의 반복 이미지는 사물의 그림자 역할과 동시에 메시지를 강조해 보는 의도를 갖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이미지 반복과 대비의 강조로 통일성과 변화의 조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판11.노덕희, 작업 고스트 이미지, 2018

4. 작품 분석



작품1 <Rhythm>, sugar lift, spit bite aquatint, line etching,
print on Hahnemuhle 23x30cm, 2018

작품1 <Rhythm>, sugar lift, spit bite aquatint, line etching,
print on Hahnemuhle 23x30cm, 2018

내 안의 어린 소녀는 발레를 했었다.

plie, demi plie, grand plie, ron de jamb, grand battement..

발레 bar exercise에서 연습하던 동작 명칭의 몇 가지이다. 이러한 춤동작에서 손과 발 끝의 움직임, 그리고 시선은 공간에 무수한 선을 그린다. 공간에 그려지는 수많은 비가시적인 선들은 유연한 선들을 만들어 가며 리듬, 속도, 크기, 과장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며 선이 되어 흐른다.

기억의 선들이 공간에 흐른다. 의식의 흐름이 이어진다.

발레에서의 음악의 관계, 움직임과 리듬, 음악 안에서 소리의 과장을 발견한다. 춤의 동작과 소리의 파동은 리듬성을 보인다. 화면 안에서 음악을 보고, 춤을 듣는 역 발상의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작업하였다. 제작은 라인 에칭으로 발레리나 몸의 형상을 만들어 스피트바이트 아쿠아틴트(spit bite aquatint)로 판위에서 직접 부식시킨 후 드라이 포인트 로 선(線)을 만들었다. 음자리 표는 슈가 리프트 아쿠아틴트 한 후, 1시간 이상 부식시켰다.



작품2 <Motion>, etching, print on Fabriano 60x60cm, 2018



작품3 <Flamenco Dance>, print on Fabriano, 13x9cm, 2017

작품2. < Motion>, etching, print on Fabriano 60x60cm, 2018

지난 역동적인 시간의 기억을 팽이의 맷고 풀리는 회전에서 찾아 선(線)적 요소로 해석하여 드러내고자 같은 이미지를 상, 하, 좌, 우로 배치시키어 속도와 반복되는 일상을 선의 리듬과 이미지의 반복 배치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의 리듬과 흐름을 통하여 회전하는 시간 안의 기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제작에 있어서 선의 흐름을 표출하기 위해 액상 상태의 슈가 리프트 아쿠아틴트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리듬과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팔꿈치가 중심축이 되고 팔의 길이가 줄어 붓 끝이 추가되어 만들어 지는 형상으로 작업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억하는 시간들을 선의 리듬과 속도의 흐름을 갖추어 가며 작업하였다.

작품3. <Flamenco dance>, sugar lift aquatint,
print on Fabriano, 13x9cm, 2017

지난 스페인 여행에서 본 플라멩코 무용수의 동작과 의상의 화려한 움직임은 유연한 곡선적인 흐름으로 해석하여 화면 안에 채워나갔다. 곡선적인 흐름을 야기 시키는 이미지들은 농담(濃淡)의 변주로 스며들 듯이 공간속에 사라졌다 다시 드러나는 공간성을 부여하여 유연한 흐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플라멩코 무용은 그 발달 과정에서 사회생활의 근대화에 따라 대중이 무용을 돌보지 않게 되었을 때 집시가 대신하여 전승과 발전에 힘썼기 때문에 그 형식에는 집시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 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춤이 아니고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위하여 추는 것이라고 집시들은 말한다. 플라멩코 춤은 전 세계의 민속 무용 중에서 가장 프로페셔널 한 기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¹⁴⁾ 본인 작품에서는 플라멩코를 구성하는 무용수, 기타 반주, 관중의 환호까지도 기억하며 그 장면을 선적 흐름으로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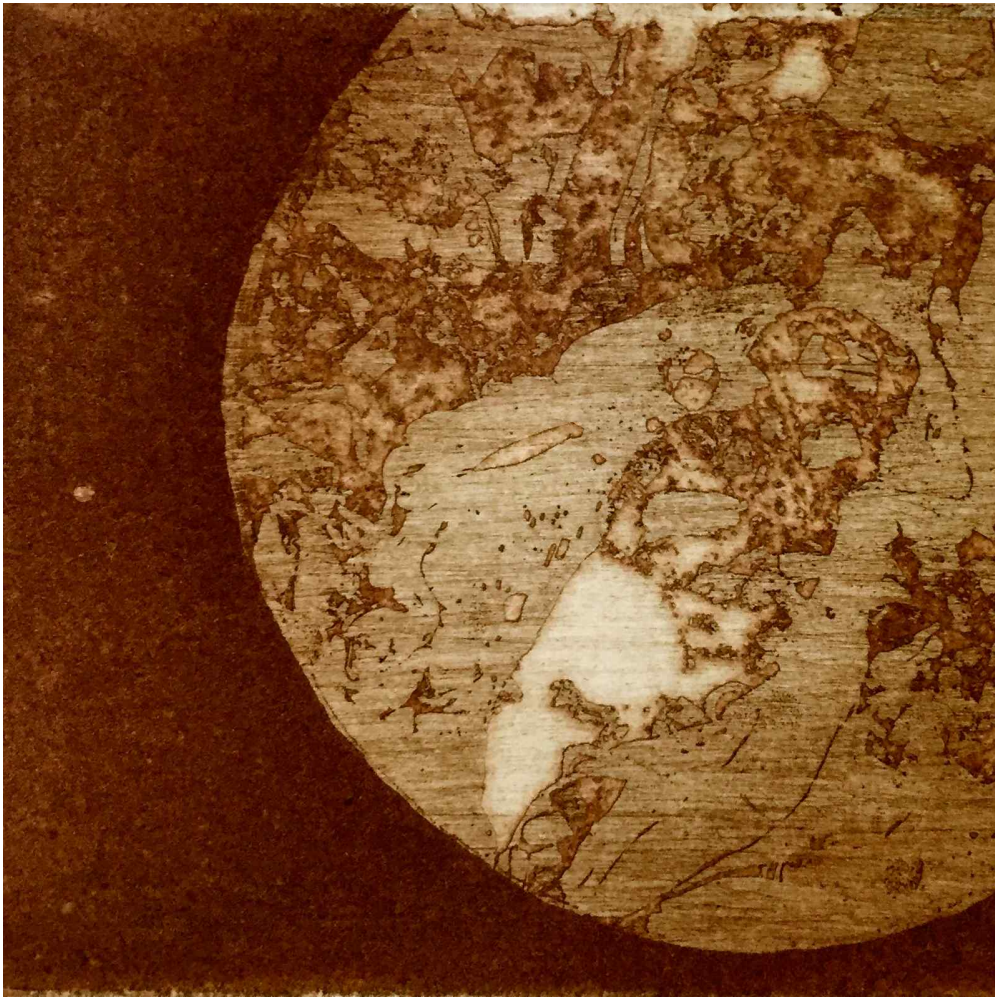
14) 플라멩코 무용(<https://ko.m.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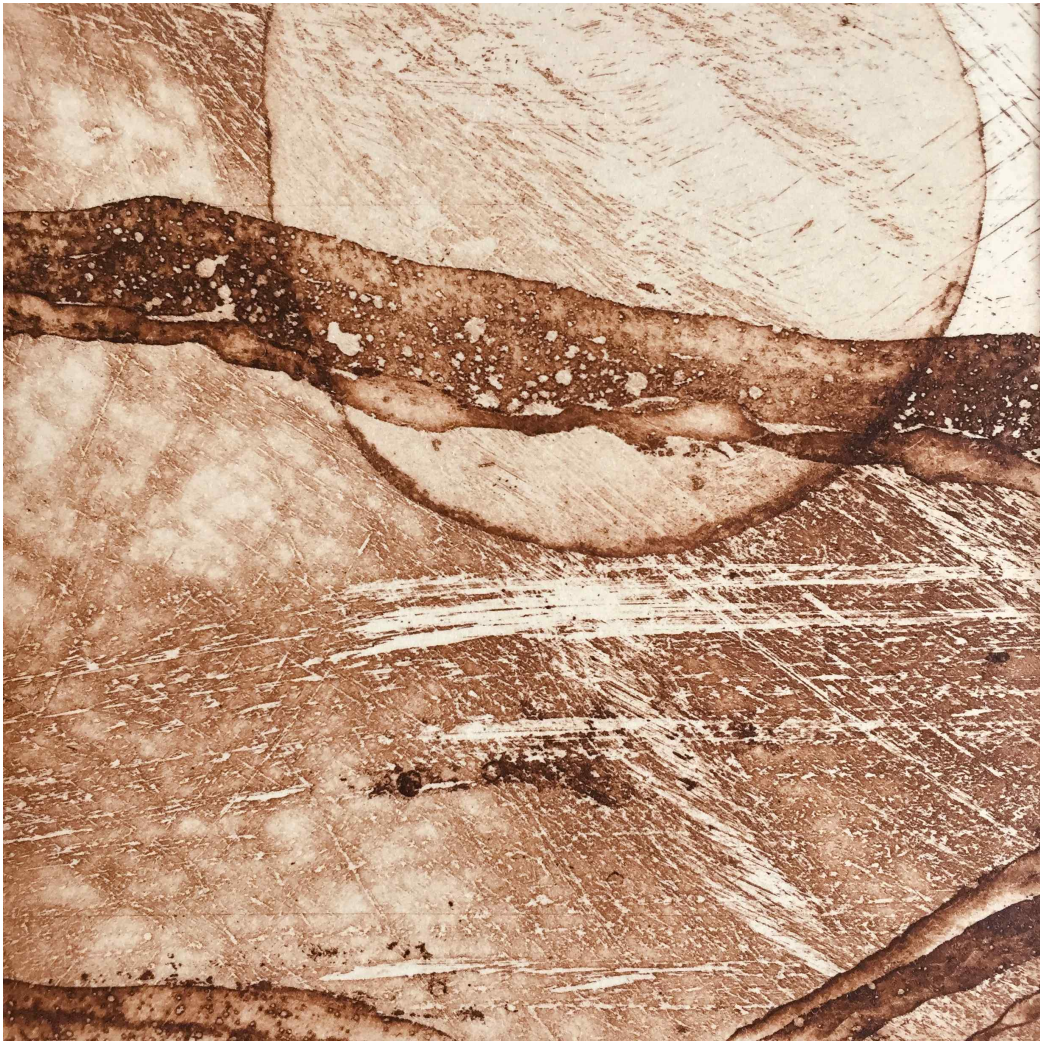
작품4 <Rhythm and sound>, sugar lift aquatint,
print on Fabriano, 80x120 cm, 2017

작품4. <Rhythm and sound>, Sugar lift aquatint,
print on Fabriano, 80x120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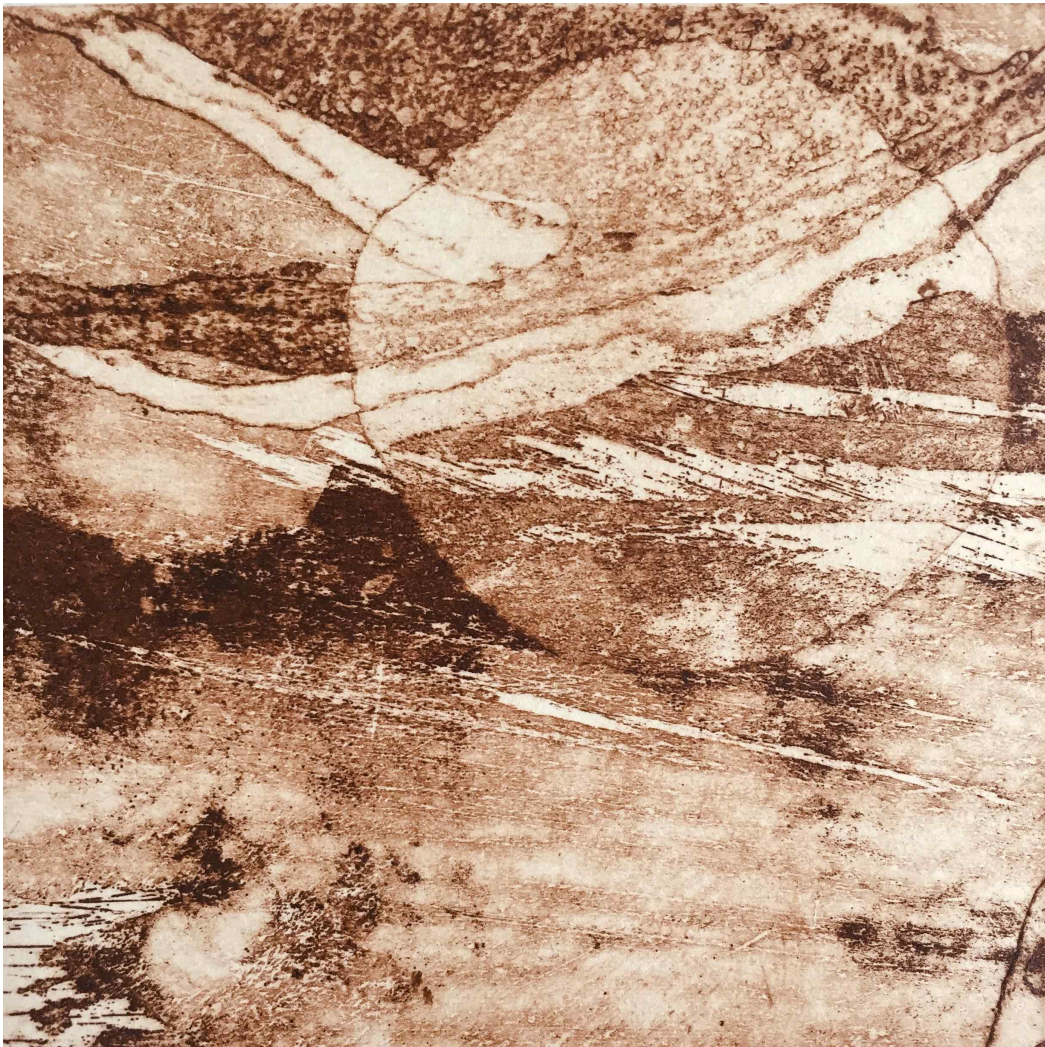
발레에서 음악의 중요한 역할은 춤을 추는데 동반되는 리듬이다. 소리의 파장과 울동의 리듬을 선적인 흐름으로 해석하여 작업하였다. 즉 음악 소리가 만들어 내는 파장을 선적 흐름으로 인지하여 그 리듬과 소리를 시각화하였다. 허공에 수많은 원을 그리어 가며 흐름의 선을 만들어 나갔다.



작품5 <Ganymede>, etching, print on Hahnemuhle 10x10 cm, 2016



작품6 <Moonlight I>, sugar lift aquatint, soap ground aquatint
print on Hahnemuhle, 10x10 cm, 2017



작품7 <Moonlight II>, sugag lift aquatint, soap ground aquatint
print on Hahnemuhle, 10x10 cm, 2017



작품8 <Moonlight III>, Monotype chine colle,
print on Fabriano 60x60 cm, 2018

작품5 <Ganymede>, etching, print on Hahnemuhle 10x10 cm, 2016

작품6. <Moonlight I>, sugar lift aquatint, soap ground aquatint,
print on Hahnemuhle, 10x10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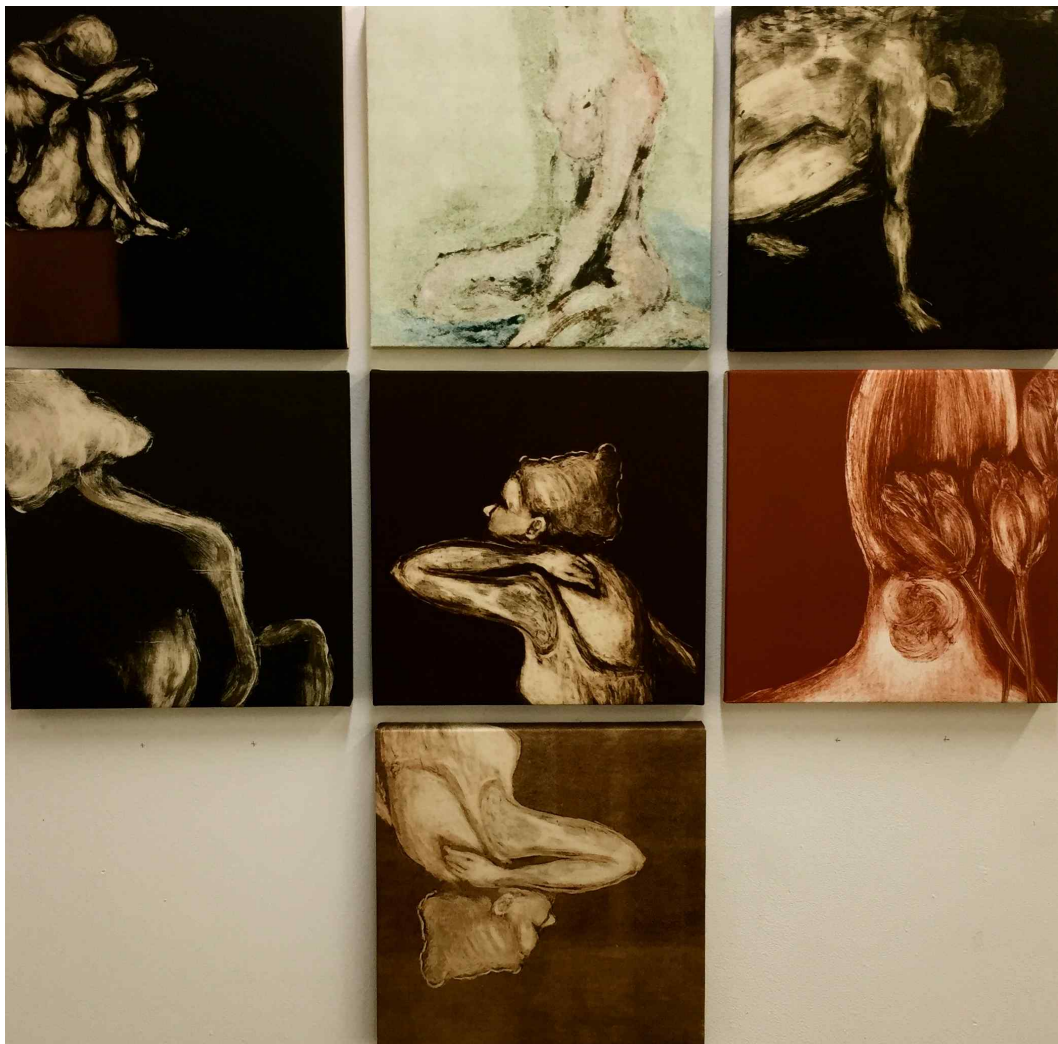
작품7. <Moonlight II>, sugar lift aquatint, soap ground aquatint,
print on Hahnemuhle, 10x10cm, 2017

작품8. <Moonlight III>, monotype, chin colle
print on Fabriano, 60x60cm, 2018

달은 위치와 모양이 매일 조금씩 이동하며 한 달 사이 달의 모양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점점 커지고 또 작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닌 햇빛을 받는 부분에서만 보여 지기 때문이다. 달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 384-322 BC)는 과거 우주를 지상계와 천계로 나누었고 갈릴레오(Galileo Galilei 1564-1645)는 망원경으로 달을 본 첫 번째 과학자 이다. 갈릴레오 그가 본 것은 울퉁불퉁한 표면의 모습이었으며 완벽한 구가 아닐 뿐더러 2000년을 믿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상이했다.¹⁵⁾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힌 달 임에도 인간의 실존과 초월의 은유의 대상인 달은 여전히 상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에서 본인이 상상하는 형상을 찾고 심연의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되어 지곤 하였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담아 비추는 달에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고요한 달빛 위로 본인의 심상을 투영해 보며 사색하여 본다. 기억의 선들이 공간에 흐른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 이어진다.

15) 김상욱, <떨림과 울림>, 동아시야, 2018, p.141.

제작 방법은 비누 가루, 린시드 오일, 타이타늄 옥사이드 배합물로 동판 위에 이미지를 직접 그리어 내고 완전히 말린 후, 송진 가루를 입히어 열판에서 구워낸다, 그 다음 희석된 염화제이철에 부식시킨다. 결과로는 비누 배합물로 그려낸 이미지가 밝은 톤이 되어 진다.



작품9 <Memory-Ballet>, monotype, print on Fabriano,
30x30cm each, 2018

작품9. <Memory -Ballet>, monotype,

print on Fabriano, each 30x30cm, 2018

육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무희의 무언의 몸짓은 인간이 갖는 많은 감정을 담아낸다. 기쁨, 슬픔, 분노, 즐거움, 공포, 사랑, 혐오, 증오, 욕망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30x30cm의 정방형 틀 안에 담아 배치하였다. 사각틀은 마음의 방을 뜻하며, 여러 개로 나열된 배치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함을 뜻한다. 상단에 보이는 무희의 웅크린 동작은 두려움, 슬픔, 혐오, 분노, 비통, 걱정, 패배의 어두움을 무게감으로 표현하였다. 에드가 드가가 무희를 소재로 많이 그린 이유 중 ‘순간의 포즈를 새로운 각도에서 잡아 부각 시키는 것을 즐겼다고 하듯이 본인 작품에서의 무희의 뒷모습 표현은 감춰진 심연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랐던 의도였다. 아래위로 치환시킨 무희의 이미지에도 본인 자신을 투영시켜 본 것이다. 이러한 모노타입 작업은 에드가 드가의 작업 방식과 동일하게 잉킹한 동판위에 이미지를 구상하고 탈라탄으로 지워내며 톤을 만들며 진행하였다.



작품10 <Memory-Moon>, monotype, print on Fabriano, 90x90 cm, 2018

작품10. <Memory-Moon>, Monotype,

print on Fabriano paper, 90x90cm (each 30x30cm)

현재와 미래를 잇는 본인의 인생 후반기를 사색해 보면서 상상과 추론의 대상이었던 달에 자신을 투영하며 심상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이 갖는 고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사색하며 긍정의 감정들을 상상해보는 의식의 흐름을 고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배열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기억하는 시간과 사색의 흐름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Ⅲ. 결 론

2017 - 2019년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에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갖는 기억과 사색의 개념을 어떻게 가시화 시킬지에 대한 물음을 갖고 그에 대한 해법의 한 가지로 ‘흐름’의 요소로 접근해 보았다 ‘흐름’ ‘흐르다’는 사전적 의미로 ‘시간, 세월이 지나다’, ‘액체가 떨어지다’, ‘미끄러지듯 움직이다’, ‘번지다’를 의미한다. 기억하고 사색하는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가시화시켜 표현할 것인가를 고찰해보고 그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기억을 통한 사색적 표현- ‘흐름’ 연구를 위하여 선, 소리, 진동, 파장, 울동. 리듬, 반복, 변화, 운동, 현상, 구조등의 조형 요소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기억’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삶의 흔적과 기록이며 자아 정체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현대인이 갖는 실존적 공허의 문제를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론인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과정에 주목하고 본인의 실존적 의미를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의 조형적 구현을 움직이는 ‘흐름’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내재된 조형성을 찾아 작품 세계를 구체화 시키고자 하였다.

본인 작품 제작의 표현 매체는 판화로서 주 판종은 에칭과 모노타이프이다.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에칭 작업은 많은 수공업적 숙련을 필요로 하기에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본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걱정 부식 시간의 통계와 재료의 성질 분석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그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본인이 움직임의 흐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과 리듬을 동판 위에 중첩시키고 교차시키는 과정에서 드라이포인트 방법은 강직하고 경직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슈가 리

프트 아쿠아틴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부드럽고 다양한 톤과 유연한 흐름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선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본인이 다루었던 또 하나의 판종, 모노타이프는 판과 장(場)이 분리되고 찍혀 나오는 판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복수 제작이 안 되는 비효율적 문제를 안고 있다. 본인은 이것을 고스트 이미지로 한 장 더 제작함으로써 효율성을 기대하였다. 여기에서 동일된 이미지를 상하 위치로 대비시켜 배치함으로써 미리 이미지로 착시되는 효과를 가지게 하였으며, 정적인 화면에 동적 움직임을 유발시켜 활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미지의 반복은 사물의 그림자 역할과 동시에 메시지를 강조하는 힘을 가지며, 본인이 의도하였던 기억을 통한 사색의 표현 연구에 접근되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다양한 실험적 조형기법 모색과 본 논문을 서술하면서 기억하고 사색하며 찾는 실존의 의미를 시간의 연속성을 통하여 ‘흐름’의 요소로 인지하고 이를 선과 흐름의 조형으로 모색한 것에 의미를 갖는다.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물(物)-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에서 운동하는 흐름을 발견하고 조화미를 모색하는 작업을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시작으로 새롭게 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창작 본연의 자세라는 견지에서 다시 새로운 표현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표현의 실제 작업 과정에서 경험한 착오를 바탕으로 재료의 성질 분석, 부식 시간 등의 데이터를 체계화 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개 더 발전된 작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상욱, <떨림과 울림>, 동아시아, 2018
- A. N. 호지(Anne Nicola Hodge), <서양 미술사>, 미진사, 2015
- E. H. 콰브리치, <서양 미술사>, 예경, 2013
- 앙리 루아레트, <드가 무희의 화가>, 시공사, 2003
- 에드가 드가 외, <드가-춤 추는 여인>, 창해, 2000
- 에드거 윌리엄스, <달-낭만의 달, 광기의 달>ebook, 반니출판, 2015
- Emily York, *Magical secrets about aquatint*, crown point press, 2008
- 베른트 그로베, <에드가 드가>, 마로니에북스, 2005
- 빅터 프랭클, <죽음의수용소에서>ebook, 청아출판사, 2005
- 존 버거,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6
- 존 버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2
- 폴 발레리, <드가. 춤. 데생>, 열화당, 1994
- 프랭크 윌척, <뷰티풀 퀘스천>, 흐름출판, 2018
- 후쿠오카 신이치, <동적 평형>, 은행나무, 2010

ABSTRACT

Study of speculative expression through memory

- Focused on my works -

Duckhee Judy Noh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essay exploring the intention and formative point of view of the work created with the theme of 'Research on Speculative Expression Through Memory'

The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past years are piled up in the memory of the person who lives the middle life, and the experience and the memory are the attitude and the story about the life which is the present self. Memory is an autobiographical record that links past, present, and future life. The meaning of existence is inherent in the process of remembering and thinking about this autobiographical record and applying it to today 's life. Based on the memory of the last time, my work implies the meaning as a subjective existence that

contemplates this in today's time, applies it to life, and continues to the shape of tomorrow's life. As a process of remembering and contemplating, the search for formative expression is a process of finding the meaning of life and also has the meaning of confirming self identity.

Therefore, I perceived the meaning of memory and the structure of speculation as the flow of time connecting past, present and tomorrow, and divided the story of life into two periods of past and present. First, it is time to reminisce memories of experience. It is the study of expression that interprets the meaning of ballet learning memory as a line flow in connection with the shape of life, and second, The meaning of the flow is divided into the formative view and discussed.

In this way, this paper describes the formative background of ballet and moon image formation in the linked time, and discusses how emotional expressions of rhythmic dance movements are similar to those of life. And the meaning of the moon with the symbolic meaning as objects of contemplation is explained by the flow of contemplation leading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ng it as the formality of the 'shipping flow' is presented. Then, I explained the formative expression technique focusing on the printmaking technique of the work, and tried to explain the intention and the expression intrinsic to i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work. Finally, I summarize the contents discussed in the conclusion and discussed the achievements and the problems to be solved through the research.

Based on the study of the theory of expression methods that visualize

the notions of 'memory' and 'speculation'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is process, I intend to base it on the basis of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